

LG정보통신, '에듀넷' 구축사업자로 선정

LG정보통신(대표 서평원)은 한국통신과 공동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교육정보 전용망인 에듀넷 구축사업자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LG정보통신은 이번 사업에서 망 접속을 위한 비동기전송모드(ATM)스위치와 가입자접속장비(MAX TNT)구축을 맡아 올 9월 말까지 전국 13개 지역에 2000포트를 설치하게 되며 한국통신은 전용선 구축을 담당한다.

LG정보통신측은 이 작업이 완료되면 기존 에듀넷 사용자는 고속으로 멀티미디어 교육자료를 받을 수 있어 사이버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후지쯔, 후지쯔 아시아·태평양 장학생 모집

한국후지쯔(대표 : 안경주)는 2000년 후지쯔 아시아·태평양 장학생 선발을 위해 8월 9일부터 원서를 교부, 오는 10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하와이의 JAIMS(日美경영과학연구소 : Japan-America Institute of Management Science) 및 일본, 중국에서 교육받게 되며, 교육기간 동안의 학비와 생활비, 항공료 등 수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아무 조건없이 제공받게 된다.

이 장학제도에는 JEMBA(Japan-focused Executive MBA), CHEMBA(China-focused Executive MBA), ICMP(Inter-Cultural Management Program) 등 세 가지 코스가 있다.

후지쯔아시아·태평양장학제도(FAPSP : Fujitsu Asia Pacific Scholarship Program)는 정보통신, 전자,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후지쯔가 창립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매년 아시아·태평양지역 10개국에서 학사학위를 지닌 대학원생 및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일본, 중국, 미국의 경영과 문화를 배우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체험함으로써 한태평양의 공존공영을 촉진하고자 제정한 장학제도이다.

문의: 한국후지쯔 사무지원부 권기원 과장 3787-5811

LGEDS시스템, 카자흐스탄 EDMS컨설팅 사업권 '수주'

LGEDS시스템(대표 김범수)이 국내업체로는 처음으로 정보기술(IT) 컨설팅사업부문의 해외사업권을 따냈다.

LGEDS시스템은 최근 카자흐스탄 국영석유업체인 카자흐오일사의 50만달러 규모의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컨설팅사업에 대한 국제입찰에서 영국, 캐나다, 러시아 등 세계 유력업체를 제치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수주는 프로젝트 전체의 밑그림을 그리는 컨설팅사업 특성상 향후 수천만달러가 넘는 카자흐오일사의 SI 본프로젝트 수주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컨설팅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업체들의 해외진출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세계은행의 예산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카자흐오일의 컨설팅사업은 EDMS 사업추진을 위한 기술사상, 설계, 규모, 비용에 대한 평가 및 계획 수립 전반에 걸쳐 이뤄지며 내년 2월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수주에서 세계 유력업체들을 꺾고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LG칼텍스정유의 EDMS 컨설팅 구축 경험과 대법원, 특허청 등 다수의 EDMS 프로젝트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높기 때문으로 LGEDS시스템측은 분석했다.

LGEDS시스템 오해진 부사장은 “이번 국제입찰에서 전세계 20여개 IT업체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사업자로 선정됐다”면서 “국내 기술력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만큼 해외시장에서 국내업체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SK텔레콤, 택시요금 카드 결제 서비스

SK텔레콤(대표 조정남)은 매크로정보통신과 공동으로 011 이동전화의 무선데이터 기능을 이용, 이동중에도 신용카드 조회 및 승인,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택시요금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개발하고 지난달 2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택시 운전자나 택시회사는 매크로정보통신(02-525-2464) 전국 30개 대리점에서 기기를 구입(가입비 포함 총 60만원)하면 되며 이용요금은 평상시 10초당 15원이다.

농심데이터, 우체국 수납장표시스템 구축 맡아

농심데이터시스템(대표 김용서)은 최근 우체국 광학문자인식(OCR) 수납장표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농심데이터시스템은 이번에 수주한 우체국 수납장표 관리시스템을 99년 하반기에 개통하는 체신금융망과 연동하고 기존 도스환경에서 윈도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 210여개의 정통부 산하 감독국에 기존 OCR용 단말기 교체와 병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금융결제원에서 추진중인 수납장표 정보화 업무와 더불어 OCR 기계를 스캐너로 교체한다는 전제 하에 추진되고 있다.

신세기, 휴대폰 가정교사 서비스

신세기통신(대표 정태기)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교육방송(EBS) 교재 문제 해설을 통화료와 정보이용료 없이 무료로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폰 가정교사」 서비스를 이달 1일부터 시작한다. 이용방법은 017 이동전화로 080-170-4001로 전화하면 되며 99학년도 수능시험 전(11월 17일)까지는 모든 비용을 신세기통신이 부담하고, 이후에는 정보이용료 없이 통화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데이콤, 도메인 관리 서비스

최근 개인, 기업들이 여러 개의 인터넷 도메인 및 전자우편 계정을 갖는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데이콤(대표 박치영)은 최근 개인, 기업이 보유한 복수 인터넷 도메인 및 전자우편 계정을 실제 운영중인 사이트로 자동 연결시켜주는 「도메인 포워딩」서비스를 지난달 16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 현재 일부 PC통신업체가 개인 도메인인 「pe.kr」에 한해서는 포워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업체 도메인이나 전자우편 계정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도메인 포워딩 서비스는 「웹사이트 포워딩」과 「메일 포워딩」 2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a.co.kr」 도메인을 운영중인 특정인이 「b.co.kr」 「c.co.kr」라는 복수 도메인을 추가할 경우 각각의 홈페이지는 별도로 제작,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번 포워딩 서비스를 이용하면 b.co.kr나 c.co.kr로 접속시 a.co.kr로 자동 연결된다. 전자우편 계정도 마찬가지로 원리로 복수계정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개인 홈페이지에 「공사중」이라는 메시지를 표시, 예기치 않은 도메인 취소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데이콤은 설명했다. 희망자는 데이콤 보라넷 도메인 포워딩 서비스 홈페이지(<http://domain.bora.net>)에서 신청, 7일간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 기간에 설치비 3만원과 연 이용료를 결제하면 이용 가능하다.

LG텔레콤, 펜티엄PC 받고 PC통신 3년 무료 파격상품 출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기발한 가입자 유치 마케팅이 눈길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동전화에 가입하면 120만원 상당의 펜티엄PC와 PC통신 천리안 3년 무료사용권을 번들로 받는 '배보다 배꼽이 큰' 파격상품이 나왔다.

LG텔레콤(대표 남용)은 20일부터 오는 10월까지 019 슈퍼클래스요금을 선택하는 신규가입자에게 월 3만원씩 1년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120만원 상당의 펜티엄PC를 제공하고 3년 동안 천리안 기본이용료(월 1만2000원)를 면제해준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번들 이벤트는 LG텔레콤이 LGIBM, 데이콤 천리안, 비씨카드사와 협력해 진행하는 것으로 기존 019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LG텔레콤은 슈퍼클래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년 신형단말기로 교체해주는 기존 혜택과 펜티엄PC 구입 중 한 가지를 선택토록 조건을 제시하되 PC선택자가 3년 안에 요금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면 PC가격 120만원을 고스란히 지불토록 할 예정이다.

LG텔레콤의 슈퍼클래스 요금은 월 600분 이상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가입자를 주 대상으로 한 요금상품으로 월 6만원 기본요금의 경우 600분간 기본통화가 제공된다.

LG전자CU 64개사 Y2K인증 완료

LG전자CU는 8월말에 LGLCD, LG정밀, LG마이크론 등 3개사가 Y2K인증을 획득, LG전자, LG정보통신, LG히다찌 등 전자CU 6개사 모두 Y2K종합인증작업을 완료했다. Y2K인증완료 축하식이 지난달 17일 트윈빌딩에서 개최돼 Y2K문제 해결을 전담해온 LGEDS시스템 김범수 사장이 구자홍 부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솔PCS, 음영지역 통화품질 개선 원편파 안테나 개발

한솔PCS(대표 정용문)는 에이스테크놀로지(대표 구관영)와 공동으로 전파를 회오리식으로 송신해 건물 안이나 도심 음영지역의 통화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원편파 안테나」를 개발하고 특허출원까지 마쳤다고 최근 밝혔다.

개발주역인 한솔PCS 박시우 박사는 “원편파 안테나는 전파를 수직으로 운동 전진시키는 일반 이동전화안테나와 달리 전파를 원처럼 회전 이동시켜 통화 수신율을 향상시킨다”며 “실험결과 음영지역의 경우 단말기 수신강도가 2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솔PCS는 이달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의 모든 기지국 안테나를 원편파 안테나로 교체하는 한편 추가 신설 기지국에도 이 제품을 적용할 계획이다.

■ 한전정보, 엑스칼리버 정보검색시스템 국내 독점 공급

한전정보네트웍(대표 서사연)은 최근 세계적인 정보검색시스템업체인 미국 엑스칼리버사와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용 검색툴 등 이 회사가 공급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정보네트웍은 동영상 데이터도 검색할 수 있는 「스크리닝 룸」 「비디오 분석엔진」 「비주얼 리트리벌웨어」 등 텍스트에서 동영상에 이르기까지 웹 환경에서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분류 및 검색 제품을 모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한전정보네트웍은 이번 제품 공급으로 점차 향상되어가는 데이터에 따른 검색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기반한 지식관리시스템, 전자적자원관리([href="/etnews/word_content?19970903140247"](/etnews/word_content?19970903140247))ERP 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양사는 국내 독점판매 계약뿐 아니라 검색관련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교류 협력 협정서도 체결, 앞으로 이 분야에서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갈 계획이다.

■ 대상정보기술, 차세대 बैं킹솔루션시장 선점 박차

대상정보기술(대표 박해수)이 최근 국내 은행권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차세대 बैं킹 솔루션 시장선점을 위해 미국 산체스의 बैं킹 솔루션 「프로파일」을 도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제품은 다중채널 전자은행 서버로 프로파일/애니웨어와 다중기업, 다중통화의 비용중심 회계시스템인 프로파일/FMS, 그리고 다양한 자산 및 채무관리 도구를 포함하는 재무지원시스템 등 개방 플랫폼에 운용되는 세 개의 통합 모듈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시티뱅크, ING그룹 등 세계적인 은행에서 채택해 급부상중인 차세대 बैं킹 솔루션이다.

대상정보는 최근 미국 현지에 전담팀을 파견해 프로파일의 조기 한글화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산체스프로파일을 기반으로 다음달부터 차세대 시스템 도입을 추진중인 국내 은행에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해수 사장은 “지난 7월 보안성이 뛰어난 독일 넷라이프사와의 협력체결에 이어 이번 프로파일제품 확보로 차세대 बैं킹 솔루션 경쟁력이 크게 제고됐다”고 자신하며 앞으로 국내시장은 물론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